

## 소프트웨어, 정책지원 구체적 실현

김 교 덕 (주)코리아씨앤씨 대표이사

97년초 금년 소프트웨어 산업전망은 한마디로 '매우 밝다'고 각계의 전문가나 정부당국자도 말한바 있으며 과거 수년의 40%대의 성장이 금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는 미래의 성장산업인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기대 또한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96년말에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SW산업육성계획은 매년 수정되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5개년 계획으로서 시행 1년을 맞았으며 금년말에도 수정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금년에 이룬 성과로는 창업보육을 위한 5개 대도시에 SW지원센터 설립, 해외지원센터설립 추진, 멀티미디어컨텐츠지원센터 설립, SW공제조합(SW산업협회내의 SW공제본부로 출범)등의 지원기구가 설립되었고, 12월에는 SOFT EXPO가 개최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와 벤처육성을 위한 Stock Option제도 도입, SW대가기준 제정, 국가계약법상의 일괄계약제도 실현, 예산 편성시 SW구입, 예산 10%이상 설정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성장속도의 둔화와 연말에 밀어닥친 IMF한파는 대부분의 업체가 금년 목표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98년) 사업계획들 수립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심하면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장면에서 보면 금년에는 인터넷, 인트라넷 등의 정보통신기반 확충과 더불어 패키지와 콘텐츠 분야가 대폭 성장하였으며 PC통신의 고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시장수요의 대부분(86%)을 차지하는 시스템 통합 분야는 이미 96년부터 성장둔화의 조짐이 나타났으나 전년 수주가 금년에 실현되는 특성관계로 상반기까지는 고성장을 유지했으나 하반기에는 성장속도 둔화가 두드러졌다. 이에 더하여 IMF 한파는 감량 경영에

전 산업분야에 휘몰아쳐 수요예측 지체를 어렵게 하고 있어 각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온갖 수단을 짜내기 위한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런데 SW 육성계획이나 정보화추진계획이 실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W 산업환경이나 시장전망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좀더 근본적인 진단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보화' 'SW산업육성'을 해야한다고 목적을 높이고 있으나 왜 해야하는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 정보화는 그 수단임에도 정보화가 목적인양 추진하다가 보니 가시적인 기구설립 행사, 홍보에 주력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반성해 볼 일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조직·시스템의 재정비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기술이 같이 동원되어 새로운 사고와 행동양식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바 '정보화'보다 '정부경쟁력강화'나 '산업경쟁력강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또 계획의 실천방안에서 부처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부처 자체에서 실행가능한 것만 실행계획에 반영되는 현상은 정보화가 국가전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손쉬운 것만 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든 당면한 생존을 위하여 정보화예산이 우선 삭감되는 현실은 정보화투자가 장기적인 전략하에 실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

그리고 '육성'이라는 표현은 경제주체를 수동적인 입장으로 보는 시각이 내포되고 있어 정책면에서는 여건 조성만 하고 기업활동은 각 주체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SW 산업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정책당국이나 기업인들이 모두 보다 깊은 성찰로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